

돌아온 에이스들...2R 판 뒤집을까?

바스켓볼 브레이크

중·하위권 반격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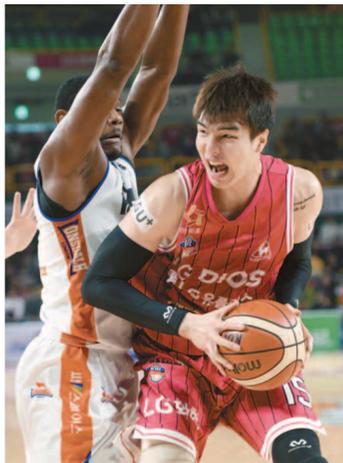
재정비 마친 LG·모비스 순위싸움 '다크호스' 힐 합류 kt·에잇 복귀 KCC 하위권 탈출 기대



'2016~2017 KCC 프로농구' 1라운드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올 시즌 1라운드에는 유독 부상자들이 많이 나와 순위 싸움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4승4패를 거둔 LG, 3승5패의 모비스, 공동 9위 kt와 KCC(이상 2승 7패)는 부상 변수로 힘겨운 1라운드를 보냈다. 부상자의 복귀, 부상 당한 외국인선수의 교체 등으로 전력을 정비한 LG, 모비스, kt, KCC가 2라운드부터 다른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 '천군만만' 김종규가 돌아온 LG

LG 센터 김종규는 개막에 앞서 훈련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재활로 새 시즌을 맞이했다. 최근 복귀한 김종규는 3경기를 뛰었다. 부상에선 완쾌됐지만, 출전시간은 짧았다.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 코칭스태프는 김종규의 컨디션을 천천히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가 경기를 거듭하며 감각을 되찾으면 LG의 골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G는 또 부상을 입은 마이클 이페브라의 대체선수로 지난 시즌 KGC에서 뛰었던 마리오 리틀을 영입했다. 리틀의 합류로 골밑뿐 아니라 외곽득점지원



LG는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김종규(오른쪽)의 가세로 힘을 얻게 됐다. 김종규가 경기 감각을 되찾으면 LG의 골밑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 KBL

도 한층 좋아질 수 있다.

● 안정세에 접어든 모비스

모비스는 양동근과 외국인선수 네이트 밀러의 부상 이탈로 개막 직후 4연패를 당했다. 그러나 이후 4경기에서 3승1패로 반등했다. 팀의 중심축을 함지훈으로 바꿨다. 밀러를 대신해 언더사이드 빅맨인에도 드리블과 패스 능력을 두루 갖춘 마커스 블레이크리리를 영입해 큰 효과를 봤

다. 함지훈과 블레이크리의 활약으로 팀의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 다른 외국인선수 찰스 로드도 부진에서 탈피해 흔들렸던 팀이 안정을 찾았다. 모비스는 1라운드 초반과는 전혀 다른 팀이었다. 2라운드에서 상위권 팀들을 위협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 용병 퍼즐 맞춰가는 kt

kt가 1라운드에서 극도로 부진했던 결정적 이유는 외국인선수 문제였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뽑은 크리스 다니엘스가 부상을 입어 벌써 2차례나 대체선수를 활용했다. 다른 외국인선수 래리 고든도 흔들렸다. 외국인선수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해 국내선수들까지 힘들어졌다. 최근 정통 센터 허버트 힐이 가세한 덕분에 국내선수들이 수비부담을 덜고,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팀의 장점인 외곽포가 살아났다. 고든도 서서히 기량을 되찾고 있다. kt는 2라운드부터 전혀 다른 팀이 될 수 있다.

● 에잇 복귀를 앞둔 KCC

KCC는 에이스 안드레 에잇을 필두로 하승진, 전태광까지 주전 3명이 모두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해 고전 중이다. 1라운드에서 2승을 거둔 것이 타행일 정도로 팀 상황이 말아 아니다. 에잇은 2라운드에 복귀한다. 사타구니 부상에서 완쾌되면 24일 LG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에잇이 합류하면 KCC의 공격력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 1라운드보다는 더 많은 승리를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감독의 칭찬은 용병을 춤추게 한다

부진했던 kt 고든, 감독 면담 후 180도 변신 삼성 크레이, 이상민 감독 믿음에 1R 맹활약

남자프로농구 kt 조동현(40) 감독은 2일 외국인선수 래리 고든(27)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다. 면담은 40분 동안 이뤄졌다. 고든은 1일 전자랜드전에서 17분20초를 뛰면서 단 1점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을 보여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혹평을 받고 있었다. 조 감독은 "고든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 외곽슛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세스퍼 존슨과 공간이 겹치다보니 자기의 역할과 활용도에 대해 혼란이 왔던 모양이다"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조 감독은 고든에게 "너는 내가 뽑은 선수다. 기회를 더 줄 것이니 열심히 해 달라"며 믿음을 심어줬다. 면담 이후 고든은 5경기 중 3경기에서 20점 이상을 올렸다. 고든은 올 시즌 처음 한국무대에 발을 들여놓은 선수다.

그동안 남자프로농구에선 시즌 개막 이전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한 채 기량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짐을 싣는 선수들이 수도없었다. KBL이 처음인 선수들은 적응에 있어서 감독의 신뢰가 절대적 힘이 된다.

올 시즌 한국무대에 데뷔한 삼성 마이클 크레이(25)는 팀 합류 초기 감독의 눈에 빨리 들기 위해 무리하게 보여주기식 플레이를 펼친 바 있다. 이 때 이상민(44) 감독은 크레이에게 "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은 선수다. 내가 잘 할하는 지도 다 알고 있으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우리 팀에서 원하는 플레이만 해줘도 충분하다"며 신뢰를 보였다. 이에 크레이는 마음 편하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었고, 시즌 초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언제 퇴출될지 몰라 조급증에 시달리는 용병들에게 감독의 신뢰만한 명약은 없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삼성 크레이

kt 고든



맥키네스 22점·10R...동부, 오리는 제압 동부 웬델 맥키네스(왼쪽)가 15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오리온과의 홈경기 도중 애런 헤인즈와 몸싸움을 하며 리바운드를 잡아가고 있다. 사진제공 | KBL



현대캐피탈 박주형(앞)이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시즌 NH농협 V리그 OK저축은행과 2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캐피탈

문석민·톤 역할분담 척척...현대캐피탈 역전승

문석민 25득점·톤 5블로킹 만점수비 풀세트 점전 끝에 OK저축은행 제압



2015~2016시즌 챔피언 결정전 왕좌를 내준 팀에게 2016~2017시즌 안방에서 열린 경기를 내줄 수 없었다.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과 자존심 대결에서 웃었다.

현대캐피탈은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15~2016 V리그' OK저축은행과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1-25 25-23 20-25 22-15 11-1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5위 현대캐피탈은 승점 12점(5승3패)을 기록하며 상위권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2위 한국전력(승점 14)과 격차도 2점으로 줄었다. 반면 2연패에 빠진 OK저축은행은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하며 6위(2승6패·승점 6)에 머물렀다.

이날 현대캐피탈의 좌우 쌍포로 나선 문석민과 톤 벤 랑크벨트의 역할분담은 확실했다. 문석민이 공격 대부분을 책임지고, 톤은 철저히 수비에 집중했다. 공격력이 워낙 약해 '수비형 외국인선수'라는 비난을 듣던 톤은 블로킹에 적극 가담했고, 4차례 후위공격을 성공하며 공수

양면에서 자기 몫을 했다. 전매특허인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도 일품이었다. 20득점(5블로킹)을 기록하며 문석민을 도왔다. 톤이 공격점유율을 높인 덕분에 공격 옵션도 다양해졌다. 문석민은 24득점(1블로킹), 공격성공률 57.5%를 기록하며 에이스 노릇을 했다. 상대 블로킹 위에서 때리는 문석민의 공격은 쉽게 막기 어려웠다. 센터 신영석(11득점·3블로킹·2서브)도 고비마다 속공으로 활로를 뚫었다.

3세트까지 세트스코어 1-2로 몰렸던 현대캐피탈은 4세트에서 살아났다. 문석민이 61.9%의 공격점유율을 보이며 7득점을 기록했다. 19-19로 맞선 상황에서 상대 공격범실과 최민호의 블로킹으로 한숨을 돌렸고, 24-22에선 신영석의 속공으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갔다. OK저축은행은 4세트 5-9에서 이날 15득점을 기록한 마르코 보이치가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나는 바람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승점 1점을 확보한 현대캐피탈은 5세트 내내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 5-4에서 연이은 상대 범실과 신영석의 서브범실로 승기를 잡았고, 12-9에선 상대 서브범실과 톤의 블로킹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문석민이 퀵오피노에 승부에 마침표를 찍자 홈팬들의 환호성과 함께 종료부 터졌다.

천안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황택의·지민경, 남녀 신인왕 독주체제

(KB손보) (인삼공사)

남 1순위 황택의, 세트당 2.294세트 존재감 여 2순위 지민경, 경기당 6.67득점·디그 10위



황택의

지민경

V리그의 신인왕 경쟁, 올 시즌에도 독주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리그 판도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임팩트는 아니지만, 꾸준히 코트를 밟는 자력으로 신인왕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지금까지(15일 현재) 남자부 신인왕드래프트 전체 1순위 황택의(20·KB손해보험)와 여자부 2순위 지민경(18·KGC인삼공사)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2010년 이후 남자부 기준으로 신인왕 레이스가 치열했던 시즌은 3시즌에 불과하다. 2010~2011시즌 당시 한국전력 소속이던 박승범이 광승석(대한항공)과의 경쟁 끝에 신인왕을 거머쥐었고, 2011~2012시즌에는 최홍석(우리카드)과 서재택(한국전력)이 경쟁했다. 2013~2014시즌에는 전광인(한국전력)과 송명근, 이민규(이상 OK저축은행)의 경쟁이 치열했다. 새 얼굴의 활약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여자부는 2011~2012시즌 박정아, 김희진(이상 IBK기업은행)의 '집안싸움' 이후 신인왕 경쟁은 독주체제였다. 2012~2013시즌 이소영(GS칼텍스), 2013~2014시즌 고예림(도로공사), 2014~2015시즌 이재정(흥국생명), 2015~2016시즌 강소휘(GS칼텍스)는 시즌 중반부터 신인왕을 사실상 예약했다.

올 시즌에도 신인들의 모습을 보기 쉽지 않다. 황택의와 지민경이 돋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반부터 승수를 쌓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기존 전력에 탄탄해 신인들을 중용하기 쉽지

않다. 한 감독은 "V리그는 테스트를 하는 자리라 아니다. 성적을 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 추세라면 만장일치 신인왕을 차지한 2015~2016시즌 나경복(우리카드), 강소휘와 같은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

황택의는 올 시즌 5경기에서 17세트를 소화하며 세트당 2.294세트, 0.059서브를 기록 중이다. 권영민과 양준식이 흔들릴 때 코트에 들어가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이다. KB손해보험 강성겸 감독은 "황택의의 출장시간을 점점 늘려가며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지민경은 공격보다 수비에서 기여도가 높다. 6경기에서 경기당 6.67득점, 공격성공률 25.58%를 기록했고, 세트당 1.261리시브, 1.957디그를 기록 중이다. 오픈공격과 리시브 부문에선 10위에 올라 있다. 남녀부 통틀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신인은 지민경이 유일하다. 한 배구관계자는 "여자부는 지민경이 독보적이지만, 남자부는 허수봉(현대캐피탈)의 출장기회가 늘어나면 황택의와 경쟁할 것으로 본다.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홍보존' 댓글 이벤트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서울시내 3개소에 설치된 마스크트 '수호랑, 반다비 홍보존'을 찾아 인증샷을 찍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올리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창 홍보존은 현재 광화문 KT 올레스퀘어를 비롯해 코엑스 전시홀 남문과 동문 앞, 서울빛초롱축제가 열리는 청계광장 앞 모전교 등에 설치돼 있으며, 마스크트와 함께 사진촬영이 가능한 포토존 형태로 운영 중이다. 당첨자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되며, 마스크트 인형과 영화에매달 등 상품으로 주어진다.

GS칼텍스 그레이, '알렉사'로 등록명 변경

프로배구 여자부 GS칼텍스의 외국인선수 알렉사 그레이(32)가 등록명을 '그레이'에서 '알렉사'로 바꾼다. 캐나다 출신인 알렉사는 올 시즌 V리그에서 14일 현재 득점 2위(164점)를 기록하며 GS칼텍스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알렉사 그레이는 평소 GS칼텍스 선수들에게 그레이 보다 알렉사로 불려왔고, 팬들에게도 알렉사로 불려지길 위해 등록명 변경이 이뤄졌다.

편지 | 심수 기자 sss23@donga.com